전법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가르침을 큰 원력으로 삼겠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전법과 포교에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많은 대중이 이미 기억하고 또 새기고 있을 것이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순례와 동참의 원력을 모아 한마음으로 새겨낸 '상월결사 108원력문'의 마지막 구절이다.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한국 불교대중의 원력으로 삼겠다는 다짐이 고스란히 이 한 구절에 담겨있다.

1월 16일, 상월결사를 이끌어 온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49재가 엄수됐다. 최근 몇 년간 스님이 이끌어 온 상월결사의 행보는 '전법원력의 일념'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법원력이 올올히 모여 새로운 전법, 새로운 원력으로 나아가는 계기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무시무종(無始無終)!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문장의 의미를 다양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반드시 그러해야 삶의 본래적 모습'이라고 읽는다. 빈부귀천을 떠나 저마다의 삶이 그대로 온전히 존중받고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의 본래적 현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성취해야 하는 삶의 본래 모습이다. 부처님의 전법원력도, 역사 속에 등장했던 다양한 불교전통이 추구했던 전법원력도, 그리고 상월결사의 전법원력도 여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전법을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 늘 꿈꾸었던 것이지만 막상 그 원력을 모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한국의 불자라면 누구나 그 원력의 한걸음을 내딛고 있었지만, 그 원력의 방향을 한데 모아서 내딛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구체적인 행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자승 대종사 강조한 '대학생 전법'
불교, 고민 함께하는 열린공간돼야
매일 전법 다짐하는 불자 늘었으면

다행히도 지금의 한국불교는 구체적이면서도 절실한 화두를 손에 들고 있다. 대학생 그리고 청년 전법이다. 상월결사를 중심으로 교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생·청년 전법 사업이다. 불교의 미래를 꿈꾸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학생·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맞잡아 주는 사업이기도 하다.

상월결사를 선두로 해서 교계의 많은 고민들이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종립대학교인 동국대에서는 이미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불교와 대학생·청년이 상생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기금, 건학장학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 각 대학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목표로 한 인적 물적 지원 방안이 상월결사에 의해 강구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원력이 구체적인 행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행보가 단순히 청년 대학생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지원자가 되어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가 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 일부에 붓다의 가르침이, 만나는 인연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씀씀이가 터전처럼 남아 있었으면 한다.

그런 마음이 전법을 다짐하는 불자들의 마음에 매일매일마다 원력으로 꿈틀거렸으면 좋겠다. 매일 매일 달이 떠서 중생 곁을 떠나지 않듯이.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신라에서 태어난 조선 시대 장군입니다."

이순신이 누구냐는 질문에 챗GPT가 내놓은 그럴듯한 오답이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해결 능력과 편의성 이면에는 진짜 같은 가짜 망상(Hallucination)이 도사린다. 생성형 AI 기술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 문제, 윤리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 어디 인공지능뿐이랴!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서 배설되는 가짜 영상, 가짜 뉴스들은 우리 삶을 심각하게 황폐화시키고 있다.

가짜 문제는 깨달음에도 만연한다. 붓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깨달음인지 팩트체크가 쉽지 않다. 필자는 몇 년 전 남인도 순례길에 티베트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수만 명의 스님들이 공부하는 승원의 규모도 놀랍지만, 동자승을 비롯해 30년 가까이 공부하는 학승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시간씩 진행되는 필수과목인 '딱샐'이라는 공부법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딱샐은 6세기 다르마끼르띠의 인명논리학을 기반으로 체계화된 공부법이다. 선문답과는 달리 붓다에 의해 확정된 논리에 의거한 대론식 교육법이다. 딱샐은 마치 싸움을 벌이는 듯한 토론 형식을 취하는데, 어느 한편이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 항복할 때까지 주장과 반론은 숨 쉴 겨를 없이 이어진다.

정보과학 관점서 존재란 정보
윤회도 정보의 상속일 뿐이다

의문이 생겨 물었다. 이치를 논리적으로 따질 때는 여유롭게 사유하며 차분히 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뜻밖의 답이 온다. 대론은 생각할 틈 없이 몰아붙이는 속도전이란다. 정견 분석이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유의 습관화란다. 정견을 뼛속 깊이 각인시킴으로써 더 이상 가짜의 노예로 살지 않으리라는 간절함이 엿보인다.

자아에 관한 이들의 사유방식을 잠시 살펴보자. 먼저 불변하는 자아, 전체자적 자아, 자재한 자아, 그런 자아는 진짜가 아니란다. 연기적이지 않은 독립적 자아 또한 가짜란다.

온통 가짜라고 부정하는 듯하지만, 반대로 가짜 같은 진짜도 있단다. 업보, 생사, 윤회, 깨달음, 해탈은 물론 자아도 진짜란다. '이름뿐인 자아!' 어이없지만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자아란다. 그것이 실재로 성립하기에 생사도, 업보도, 윤회도, 깨달음도, 해탈도 진짜란다. 한편 현대과학은 어이없어 보이는 이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다. 양자역학 관점에서 대상과 관찰자 모두 정해진 바 없는 연기적 현상이다. 정보과학 관점에서 존재란 정보에 다름 아니며, 윤회는 정보의 상속일 뿐이다. 일체가 실체 없는 이름뿐이지만, 연기적 작용력은 명백히 실재한다는 결론이다. 이름하여 '무아'요, '공성'이다.

중도의 가르침은 듣기 좋으라는 빈말이 아니다. 진짜와 가짜에 대한 명확한 팩트체크를 통해 망상을 벗어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다.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망상이 양극단이다. 양극단만 제거하면 실상이다. 찬드라끼르띠의 〈입중론〉 구절로 마무리한다. '이름에 힘입어 멸제로 나아간다.'

社 說

국민 정신건강, 불교가 책임지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7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갑진년을 '선명상 보급'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조계종은 올해 하반기 국제선명상대회 개최와 함께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시범운영,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 추진,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계획을 내놨다.

"각박한 일상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각종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선명상 템플스테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지난해부터 전문가 회의를 이어가는 등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종단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종단의 정책 방향은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회 추세와 맞닿아 있다.

실제, MZ세대에게 도박 중독과 마약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국도박예방치유원이 사이버 도박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중독현상은 집착과 결핍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불교가 열어줄 수 있다. 불교 수행의 대중화로 개발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기대되는 이유다.

제2대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에 부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2대 대통령실불자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통령실불자회는 1월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이관섭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덕수 스님,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 등 종단협 회원스님들이 참석해 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이 회장은 "부처님 말씀대로 불교계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회적 현안 해결을 모색한다면, 위기는 우리에게 더 나은 기회와 또 다른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불자회는 앞으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윤석열 정부의 불교 공약 이행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이 밝힌 '불교 공약 이행' 약속은 앞서 불거졌던 불교 홀대 논란 불식시키고, 정부와 불교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불교계는 기독교 편향적 정부 인사와 송현공원 내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등으로 정부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양서 보급을 위해 국고를 들여 선정하는 '세종도서'에서도 종교 부분 도서들이 기독교 도서 일색인 것도 문제가 됐다.

국가 법령 제개정 등 불교계 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과거 대부분 수석들이 맡았던 대통령실불자회장을 이번엔 처음으로 비서실장이 맡은 만큼 더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